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종영* · 정주호**

〈요 약〉

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언론보도·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죄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가운데에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주제어 : 軍 정보수사기관,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기무사, 대통령경호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특무부대의 경호활동 III.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의 경호활동 IV. 기무사령부의 경호활동 V. 결 론 |
|---|

I. 서 론

우리나라 유일의 軍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는 군내 정보업무와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에 규정된 내란·반란·이적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의거 군내 행사장 안전활동, 경호첩보 수집, 참석자 신원조사 등 9가지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11가지의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서 국가경호기관인 경호처를 중심으로 경찰, 기무사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기무사가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안이 요구되는 경호의 특성과 軍의 폐쇄성까지 더해져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기무사가 1950년대 경찰책임의 대통령경호 체제하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과 지시로 경찰보다 내부구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핵심 경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후 軍 개혁 과정에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집중하는 각종 경호위

협에 대비토록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무사의 초기 경호활동이 정부수립 직후 좌우이념의 극심한 대립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활동근거가 되는 정식 법률도 없이 시작되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난 60여 년간 북한의 위협과 軍 무장(병력) 및 각종 위해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공경호 수행에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비밀내용이나 세부적인 임무수행 방법을 제외하고, 공개된 국가기록원 자료, 출판물,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II. 특무부대의 경호활동

1. 특무부대의 탄생과 김창룡 특무부대장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는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를 시작으로 1960년 7월까지 활동하였으며, 현재까지 변천과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군기무사령부 연혁¹⁾

특무부대 (‘48.5~’60.7)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과 사회혼란 속에서 대공업무 전담기구의 창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에 특별조사과(‘48.5) 설치, 이후 특별조사대(‘48.11), 육본 정보국 특무대(‘49.10)로 개편 한국전쟁 발발이후 대공기구 확대 필요성에 따라 육군 특무부대(‘50.10), 해군 방첩대(‘53.1), 공군 특별수사대(‘54.3) 창설
방첩부대 (‘60.7~’68.9)	정보기관 조직개편으로 특무부대에서 방첩부대로 개칭(‘60.7)후 지하조직 침투간첩검거 및 좌익세력 척결
보안부대 (‘68.9~’77.10)	보안·방첩업무 강화를 위해 부대명칭을 육군보안사령부, 해·공군 보안부대로 각각 개칭(‘68.9), 울진·삼척지구 대간첩작전 등 수행
국군보안사령부 (‘77.10~’90.12)	각군 보안부대를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창설(‘77.10), 대공활동과 군내 비리척결 및 아시안게임·올림픽 행사 개최지원
국군기무사령부 (‘90.12~현재)	순수 군 및 군 관련 업무로 임무·조직 등 체제를 정비하여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91.1)

1)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소개내용의 재구성

제5대 특무부대장 김창룡은 함경남도 영흥군 출생으로 일본 관동군 헌병대 오장(하사)으로 근무하다 일제 패망 후 국방경비대 사병으로 입대하였다. 1947년 1월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로 입교하여 동년 4월 少尉로 임관하였다. 1948년 8월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된 이후 여순사건 직후의 숙군작업²⁾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³⁾

이때 즈음 이승만 대통령이 모종의 비밀업무를 맡기기 위해 유능한 정보장교를 찾고 있었고, 김창룡을 눈여겨본 신성모 국방장관이 1949년 10월 김창룡 중령(당시 육군 정보국 방첩대장)을 경무대로 데리고 가 이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 첫 대면이 끝난 직후 이대통령이 윤석오 비서를 불러 “김창룡! 그래 참 훌륭한 군인이야. 앞으로 나라에 크게 충성할 사람”이라며 “앞으로 김창룡은 경무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김창룡 경호책임자에게 알려줘. 나한테 수시로 중대보고를 할거야”라고 지시했고, 김창룡은 대통령을 만난 후부터 2주일에 한 번씩 이대통령에게 뭉가를 보고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군 수뇌부에서도 전혀 알 수 없었다.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김창룡은 1950년 8월 경남지구 방첩대장에 임명됐고, 1950년 9월 28일 북한군에 점령당했던 서울을 수복하자마자 이승만은 김창룡을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합동수사본부는 북한군이 수도권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졌다. 김창룡 합동수사본부장은 수시로 이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고, 1950년 10월 초부터 1951년 5월까지 김창룡은 숙군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속도로 부역자를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내무부 치안국 자료에 따르면 1950년 말까지 검거된 인원만 15만 3,825명 자수한 인원 39만 7,090명으로 총 55만 915명이 부역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과다한 검거에 따른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설치근거가 없던 합동수사본부는 1951년 5월 23일 해체됐지만 김창룡은 이 시기 이승만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고, 1950년 10월 말 대령으로 승진되었으며, 1951년 5월 15일 육군 특무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⁵⁾

이후에도 김창룡은 수많은 군내·외 사건들을 처리하며 이대통령의 신임을 이어

2) 숙군작업이란 국군창설시 군에 유입되어 하극상, 반란을 일으켰던 좌익계열 색출작업으로 1949.2~1949.11간 352명이 숙군대상으로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노영기 (2008),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 경남도민일보(2015, 7, 13). 광복70년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6화 '김창룡'

4) 동아일보(1974, 7, 15). 1공화국 비화 12화: 김창룡 소장 저격사건. 4면

5) 경남도민일보(2015, 7, 13). 광복70년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6화 '김창룡'

갔으나 결국 1956년 1월 30일 출근길에 옛 부하였던 허태영의 총탄에 피살되었다. 이대통령은 “나라가 망했군! 나라가 망했어!”라고 탄식하며 잠옷에 외투만 걸치고 통의동(옥인동)에 있는 특무부대 본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내가 수차 몸조심하라고 했지만, 그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라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하더니만...”이라며 애통해 했다고 한다. 이어 부대장의 시신 앞에서 있던 특무대 간부들에게 “이 火賊을 잡을 사람이 누구냐? 이 화적을 바로 잡아야지!”라고 신신당부후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경무대로 돌아갔다고 한다.⁶⁾

〈표 2〉 김창룡 연표⁷⁾

1916. 7. 18	함경남도 영흥군 출생
1938~1941	일본 관동군 헌병대 군속·보조원 근무
1943	중국 공산당 거물 왕진리 체포, 일본 관동군 헌병 오장(하사) 특진
1945	일제 패망후 부역자로 2번 체포되었으나 탈출, 월남
1946	국방경비대 사병으로 입대
1947. 1	조선경비사관학교 제 3기 입교
1947. 4	소위 임관
1948. 8	육군본부 정보국 3과(방첩과) 배속, 대위로 진급
1948. 11	여순사건 직후 숙군작업 시작
1949. 6	육군 정보국 방첩대(CIC) 대장, 7월 중령으로 진급
1950. 8	경남지구 방첩대장
1950.10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북한군 부역자 처벌 주도
1951. 5. 15	육군 특무부대장
1953. 5	육군 준장
1955. 1	육군 소장
1956. 1. 30	피살, 육군중장 추서
1956. 2. 3	건군 이래 최초 국군장으로 장례

6) Chosun Media 조선pub (2016, 7, 22). 기사사 秘錄 〈2〉 김창룡 특무대장 암살사건

7) 경남도민일보 (2015, 7, 13). 광복70년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6화 ‘김창룡’

2. 특무부대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활동

당시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경호책임기관은 경찰이었다.⁸⁾

〈표 3〉 해방이후 경호책임기관⁹⁾

항목	세부내용
1949. 2. 23	경무대경찰서 창설, 경무대경찰서에서 대통령경호 담당
1949. 12. 29	내무부훈령 제25호로 '경호규정' 제정, '경호'용어 최초사용, 대통령경호책임을 '경무대경찰서장'이 담당
1960. 6. 15	4.19 의거를 계기로 내각책임제로 전환, 경무대경찰서 폐지
1960. 8. 13	서울시 경찰국 경비국에서 '경무대경찰관파견대' 설치, 대통령 경호
1961. 5. 20	5.16 이후 군 중심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구성, 박정희 의장 경호
1961. 6. 1	중앙정보부 창설, 박정희 의장 경호 인수
1961. 11. 14	중앙정보부령 제25호로 '경호대설치령' 제정, 국가원수, 최고회의 의장·부의장, 내각수반, 국민 등을 경호
1963. 12	제 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경호실법'에 근거한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경호 담당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1950~1953) 동안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들이 위협하는 戰時 상황하에서 경찰이 아닌 특무부대에서 이승만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활동이 나타났다. 다음 내용은 김창룡 특무부대장의 일대기에 나와 있는 釜山 피난시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특무부대의 경호책임 활동에 관한 기록이다.

북한 인민군의 남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가 빨라져 우리 국군은 후퇴를 거듭하여 방어선이 대전 아래 지역으로 축소되어가자 민심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갔다. 이렇게 되자 후방지역의 공산세력 역시 날로 활발해져 지방토호나 상인들은 인공(인민공화국)이 되었을 때 유리한 처신을 하려는 기회를 엿보려는 경

8) 장철원 (2003). 한국 경호제도 변천사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6). 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7, 37-59

9) 이춘삼 (2010). 경찰경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0-18, 20쪽 재정리

향이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이 경남(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되자 부산은 전시하의 임시수도가 되었다. 김창룡 중령은 계엄하에서 경남 군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 대통령의 경호와 임시수도의 안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보 수사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¹⁰⁾

서울 수복후에도 서울에 잠복한 잔적과 좌익세력 때문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본부장을 겸임하는 특무부대장이 국가 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9. 28. 서울수복 후에는 서울에 잠복한 잔적과 좌익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1950년 10월 4일 경인지구계엄사령관의 명령에 의거 서울 종로구 국일관에 ‘군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창룡 중령)를 설치하여 서울의 치안질서를 조기에 회복시켰다. 이후 대공전담기관의 확장이 필요해지자 1950년 10월 21일 방첩대(CIC)를 육본 정보국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육본 직할부대로 ‘육군 특무부대’를 창설했다. ... 김창룡이 특무부대장으로 취임하는 1951년 5월 15일 이후 육군 특무부대는 전시 계엄업무, 군 보안업무와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업무를 통해 대통령을 보필하고 군 안결과 쿠데타방지, 부정부패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 특히, 국가 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¹¹⁾

또한, 휴전직전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회담 반대, 북진통일 주장, 거제도 포로처리에 대한 여론악화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지친상태가 되었을 때도 특무부대장이 대통령의 유고사태를 막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美 야전병원에서 극비리에 肝수술을 받도록 조치한 사례도 나타난다.

... 김창룡 특무부대장이 이 대통령의 병색이 완연함을 확인했다. 미군 CIC대장에게 비밀리에 이를 협의했다. 이에 따라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도 부천 소사 소재 안토니 美 야전병원으로 대통령의 신병을 모셨다. 진찰결과 간 기능이 심각한 상태로 판명되었다. 간이 녹아 없어진 상태로

10) 이대인 (2011).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서울: 기파랑

11) 이대인 (2011).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서울: 기파랑

수술방법 외에 약물치료가 불가하다는 진단이었다. 존각을 다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창룡 부대장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대 대통령의 유고사태는 치명적인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 부대장은 미군 CIC 대장에게 미 본국 육군병원에서의 권위있는 군의관을 특별기를 동원해서라도 데리고 와 한국 지도자의 유고를 막아달라고 간청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행히도 휴전 직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간 수술은 극도의 보안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¹²⁾

이상의 내용은 김창룡의 일대기를 쓴 책에 나타난 특무부대 활동임을 감안해볼 때 다소 과장·미화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민간사찰에서 있었던 대통령 경호에 관한 기록을 보면 특무부대가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 원허스님(1889~1966)은 어떤 인연 때문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스님이 낙산사 주지로 있을 무렵 이승만 대통령이 세 차례나 낙산사를 방문했을 정도. 수복지구 안에 있던 낙산사는 길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서울서 오기에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산사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 차례나 왔다는 것은 특별한 사이임을 증명한다. 대통령이 시골 절에 왔으니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찰 밖에는 경찰이 경비를 서고, 경내에는 특무대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호를 서고 있을 때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원허 스님을 비롯해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36관구 군사정보부대 부대장인 김동석 대령에게 당부했다. “김대령, 이 노스님 잘 모셔.” 그 뒤부터 특하면 스님들에게 도민증을 보자고 했던 경찰과 군인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한다. 최준섭 부총재(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의 기억이다.¹³⁾ 김창룡 특무부대장의 일대기를 통해 당시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긴박함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김창룡과 김창룡이 이끄는 특무부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12) 이대인 (2011).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서울: 기파랑

13) 불교신문 (2004, 7, 27). 기획연재 <105> 원허스님 ⑦

다시금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특무부대로 하여금 대통령 경호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허스님에 관한 불교신문의 자료는 당시 대통령 경호책임기관인 경찰에게 2선에 맡기는 대신 대통령경호실이 생기기 前 경호실의 자리인 1선 핵심구역에 특무부대 요원들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모습의 경호체제가 한국전쟁중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한국발발 이전 좌우익이 대립하던 시기와 終戰이후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Ⅲ.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의 경호활동

한국전쟁이 끝나고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된 이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가 대통령 경호책임기관으로서 핵심지역을 경호했다는 기록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現 국군기무사령부의 부대소개에 제시되어 있는 부대연혁에서 보듯 이때부터는 軍 정보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대공·보안업무와 군내 정보업무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호유관기관으로서 대통령경호실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임무는 부대의 핵심업무로 계속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경호·경비대책위원회 규정’이 1974년 9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는데, 同 규정 제3조 ‘실무위원회’ 구성에 유관기관으로서 가장먼저 보안사령관이 명시되고 이어서 수경사령관, 육본 헌병감, 내무부치안국장이 대통령경호실과 함께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관하여 전원이 공동으로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여전히 대통령경호에 있어 중요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軍 정보수사기관의 경호지원 역할은 1975년에 제정된 ‘대통령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단 설치에 관한 규정’과 1981년 제정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임무 또한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의 경호책임¹⁴⁾

항목	세부내용
방첩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경호실법(1963. 12. 17) - 제6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경호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안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경호·경비대책위원회 규정(1974. 9. 11) - 제3조(실무위원회): 경호실차장, 보안사령관, 수도권경비사령관, 육본 헌병감, 내무부치안국장 - 제4조(책임한계) : 대통령 경호·경비에 관하여는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으로 전적인 책임을 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 관한 규정(1975. 8. 2) - 제2조(구성) : 경호실차장, 중앙정보부장보좌장보, 육군보안사령관, 내무부치안본부장, 관세청장, 교통부차관, 외무부정무차관보,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 제3조(책임사항) 4. 육군보안사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육해공군 내의 요시·요주의자에 대한 엄중감시 나. 군부대 특히 수도권 내의 부대동향 파악 강화 다.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국군보안사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1981. 3. 2) - 제2조(구성) : 경호실장, 외무부영사교민국장, 내무부치안본부 3부장,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교통부관광지도국장, 국가안전기획부 1국장, 관세청지도국장, 합참 3국차장,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처장, 육군본부헌병감, 수도권경비사령부 작전참모 - 제4조(책임) 9.국군보안사령부 보안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수된 경호유관정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보안조치 다. 요 시찰인에 대한 동태파악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군부대 동향파악 바. 행차로 주변 군 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도표에서 보듯 방첩부대 시기에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하여 별도로 부여받은 책임 항목 없이 여타기관과 동일하게 경호실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보안부대로 넘어오면서 경호와 관련된 대통령령에 ‘육·해·공군 내의 요시·요주의자에 대한 엄중감시’, ‘군부대 특히 수도권 내의 부대동향 파악 강화’, ‘취약지역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의 재구성

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임무가 명시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로 부대체제가 통합·정착된 후에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을 총괄하는 경호실과 경찰(지안본부) 다음으로 명시된 임무가 많아졌고, 그 내용면에서도 행사前 계획수립단계에서의 경호정보 수집으로부터 행사간 현장에서의 제반 필요한 인적, 물적 조치는 물론 검문검색까지 수행하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6공화국 대통령 2명이 보안사령관 출신이라는 점 등 부대위상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경호에 대한 전문성 없이 부대위상만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지원임무를 맡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대원에 대한 경호기본 교육과 전문경호부서·요원 양성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IV. 기무사령부의 경호활동

1990년 민간인 사찰 사건¹⁵⁾으로 부대명칭이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뀌었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¹⁶⁾ 척결의 신호탄으로 하나회 출신인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격변 속에서도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오히려 책임이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경호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경호에 관한 전문성을 지속 발전시켜나갔다.

우선 1981년 제정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일부 개정되면서 기무사의 책임에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2004년 7월 24일 개정시에는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활동' 까지 추가로 명시되었다.

15) 1990년 10월 보안사에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1,303명) 사찰을 폭로한 사건

16) 전두환·노태우 등 영남출신 육사 11기 7명이 생도시절 결성한 친목단체가 후배들까지 음성적으로 이어져 140여 명의 '하나회'로 발전, 군내 요직을 독점하고 5·6공화국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1993년 명단이 유포되면서 실체가 드러나 문민정부 출범직후 인사조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4조(책임)

15.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 가. 입수된 경호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 다. 군내 위해기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마. 군부대 동향파악
- 바. 행차로 주변 군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 사.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활동
- 자.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¹⁷⁾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평소 보안지원 활동을 책임지게 된 것은 기무사가 그만큼 경호유관기관으로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특히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이라는 항목은 그동안 군내 행사장 안전활동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무사의 활동범위가 G20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에까지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통령령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으로 설치·운영되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가 2005년 3월 10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 법률에 직접 규정(동법 제16조 신설)됨으로써 활동근거가 강화됨과 동시에 경호처와 기무사령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보다 원활해지게 되었다.

기무사는 2007년 6월 21일 소격동 청사에서 청와대경호실 및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경호업무 발전세미나를 개최¹⁸⁾하는 등 새로운 경호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2008년 11월 과천 청사로 이전후에도 2010년 2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급 행사인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17)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 조항이 2004년 7월 24일 일부개정시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으로 용어 변경

18)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기무사 소식’

경호처를 비롯한 경찰·軍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하여 각 기관별 임무를 확인하고, 위협유형별 철저한 대비책과 우발상황에 대한 임무수행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회를 주관¹⁹⁾ 하는 등 경호처 및 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군통수권자 보필이라는 부대 슬로건에 맞는 위상확립 노력으로 평가된다.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강도 국방개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경호역량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10월 1일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군사정보·동향업무를 담당해온 제1처를 해체, 관행적인 동향파악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보안·방첩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국가·군 대테러 및 경호분야 조직을 보강한다고 밝혔다.²⁰⁾ 기무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세부적인 경호조직 보장 내역은 알 수 없지만 홈페이지 소개 동영상에 ‘국군 통수권자 경호임무’ 수행만큼은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본연의 보안·방첩·대테러 임무와 연계하여 대통령 경호지원활동에 더욱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軍 정보수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창설되던 해부터 지난 60여 년간 북한의 위협과 軍 무장(병력) 및 각종 위해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일부 언론을 통해 간간히 피상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자세한 배경과 경과 및 내용, 그리고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軍 정보수사기관이 변천과정을 거처온 시대별로 구분하여 당시 핵심인물의 일대기, 언론보도, 관련자 증언,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하에서 특무부대가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 국방일보(2010, 2, 25). 국군기무사 G20대비 경호 유관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2면

20) 국방일보(2017, 10, 10). 기무사 조직 개혁 ‘보안·방첩’에 무게중심. 1면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게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사前 계획수립단계에서의 경호정보 수집으로부터 행사간 현장에서의 제반 필요한 인적, 물적 조치는 물론 검문·검색까지 수행하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에는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경호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직무전문성을 향상시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방분야 軍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점증하는 각종 경호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함을 되새기게 한다.

참고문헌

- 경남도민일보 (2015, 7, 13). 광복70년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6화 ‘김창룡’,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84869&sc_code=&page=&total=
검색일 2017. 10. 2.
- 국방일보 (2010, 2, 25). 국군기무사 G20대비 경호 유관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2면
- 국방일보 (2017, 10, 10). 기무사 조직 개혁 ‘보안·방첩’에 무게중심. 1면
- 김은정 (2008). 임정 수립후 1920년대 전개된 경호활동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53-68
- 김은정 (2016). 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7, 37-59
- 노영기 (2008).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동아일보 (1974, 7, 15). 1공화국 비화 12화 김창룡 소장 저격사건. 4면
- 박영만 (2017). 경호경비분야 연구의 내용분석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개발방향 탐색.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1, 253-271
- 불교신문 (2004, 7, 27). 기획연재 <105> 원허스님 ⑦
- 인황권·김상진 (2008). 한국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199-218
- 이대인 (2011).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서울: 기파랑
- 이영순 (1970). 어려웠던 대숙군작업. 월간 卍代, 통권 87호
- 이춘삼 (2010). 경찰경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0-18, 20쪽
- 장철원 (2003). 한국 경호제도 변천사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선 미디어 조선pub (2016, 7, 22). 기무사 祕錄 <2> 김창룡 특무대장 암살사건,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0720853&nidx=20854>. 검색일 2017. 9. 11.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dsc.mil.kr/>
- 국방일보 홈페이지 <https://www.kookbang.dema.mil.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Abstract】

**A Study on Presidential Security Activities of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 Since the Korean War, from 1950 to the present –**

Choi, Jong-Young · Jung, Ju-Ho

Defence Security Command is the only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safeguarding military information and investigating specific crimes such as subversion and disloyalty in military.

While the presidential security provided by Defence Security Command, along with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PSS) and the police, forms one of three pillars sustaining presidential security, its works and activities have been rarely known to the public due to the military confidentiality.

This study looks into some data specializ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among work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by using various resources such as biographies of key people, media reports, and public materials. It reviews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in a historical sense that the works have developed and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change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which was rooted in Counter-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in Korean) in 1948 and leads to the present.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and since then the South Korea was under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left wing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rps(Bangcheopdudae in Korean) took the lead in presidential security more than the police who was in charge of it.

Secondly, even after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has founded in 1963, the role of the military on presidential security has been extended by changing its titles from Counter-Intelligence Corps to Army Security corps to Armed Forces Security Command. It has developed their provision of presidential security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president

Rhee regime when they could successfully guard the president Rhee and the important government members.

Third, since the re-establishment into Defence Security Command in 1990, it has added more security services and strengthened its legal basis. With the excellent expertise, it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G20 and other state-level ev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oon Jaemin government, its function has been reduced or abolished b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Act. However, the presidential security field has been strengthening by improving security capabilities through reinforcing the organization.

This strengthening of the security capacity is not only effective in coping with the current confrontation situation with the hostile North Korean regime, but also is important and necessary in conducting constant monitoring of the military movement and security-threat factors within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security events.

Keywords: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Counter Intelligence Corps, Defense Security Command, Presidential Security